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36호 현대불교 2007년 7월 11일(음력 5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무조건 자기 콩깍은 자기 콩씨를 믿어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일어납니다. 이 몸속에 다 있는 겁니다. 몸속에 지금 악업이고 선업이고, 팔자 운명이고 인과고 또는 유전성이고 다 여러분 몸속에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딱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거일동, 너의 결테기가 생겼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고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알맹이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그게 몸통에 결테가 된 거다. 그러나 그거를 믿지 말고 어떠한 거든지 나오는 대로,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보라 하는 겁니다. 용광로에다 넣듯이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서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팔자 운명 뭐 영계성·업보성·유전성·인과성·세균성 이게 다 입력이 됐었는데 그거 차례차례로 자꾸자꾸 솟출 나오는데 그게 다 녹는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에서 그냥 별 집 일어나듯 하고 바깥에서도 닦쳐오고 이러니까 그냥 얼마나 이게 인생살이가 힘들겠어요? 뚝뚝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로 내가 일거수일투족 생활하는 그 자체, 어떤 업보가 닦치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든지 하여간에 모든 거는 고놈이 하는 거다. 그 자동 녹을기가 하는 거다, 자동 컴퓨터가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라는 이름은 숙명통(宿命通)에 해당한다. 이 지금 천안(天眼)·천이(天耳) 또는 신족(神足)·타심(他心)·숙명(宿命) 이 다섯 가지가 합해서 자동적인 컴퓨터 그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 다섯 가지로 인해서 벌어놓는 거고 생활하는 거고, 다섯 가지로 인해서 입력이 자동적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시는 데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니까 어떻게 입력된 것이 오늘 아는 것에 바로 그게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거수일투족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다 거기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왜 놔야 하나 하면 공(空)했으니까 맙니다. 그럼 공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더불어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세계가 돼서, 한 호흡이 돼서 살고 있으니까요. 따로 내가 했다, 내가 뭐 당한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 한마음 속에서 한 덩어리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 덩어리 속에서 한마음으로 처리해.' 그러고는 거기다가 되놓는 겁니다.

아니, 지금 놓고 가지 않습니까? 아,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항상 얘기하죠, 보는 것도 고정

된 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알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이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물을 먹어도 내가 혼자 먹었습니까, 어디? 이 속에서 모두 '아! 목 타, 물 좀 줘!' 하나니까 이걸 주는 심부름꾼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심부름꾼 이자 관리인, 그리고 집합소예요. 그러니 아예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다가 또 내가 나라고 하지 말라. 모든 게 공했느니라. 그러나 색(色)이 공이요 공이 색이나라. 그러니 그대로 하공에 꽃이 피어서 만발했으니 그 도리를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란 얘기도. 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가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이 날 것이니, 그 만 가지 맛이 나는 것이 다 응신(應身)으로서 화(化)해서 여러분께 배풀어라 이겁니다. 아예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경전이다 하더라도 그 경전에도 다 써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이 세상 일 사이 없이 잘나잘나 돌아가고, 잘나잘나 나무면서, 화(化)해서, 잘나잘나 변질이 되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란다." 그러니 이 도리를 먼저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단단히 박아놓고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바로 경을 한 번 보면 그게 납득이 되고 '아!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전부 탄복을 하지만, 내가 뿌리도 제대로 박아놓지 않고 그 도리를 모르는 채 책을 아무리 봐도 그냥 곁길기죠.

그냥 이론으로 이론만 그냥 쏘쏘쏘 외우고선 금강경을 읽었다, 무슨 화엄경을 읽었다, 법화경을 읽었다, 능엄경을 읽었다 운통 읽었다는 소리는 다 하죠. 그러나 읽었다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도 자기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 자기의 예너지를 배려해 줄 수가 없죠. 그 말은 이론이기 때문에 한데 떨어져서 알아버리니깐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전부터 보지 말라. 마음의 도리부터 공부해서 완전히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경전을 한번 봐라. 그러면 경전이 너를 보지 않을 거고 내가 경전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나무부터 알아야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도반으로서 공부 하시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인도나 일본이나 그런 데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불교 교제가 나와서 대학에서 철학이 뭐니

다 배우게끔 돼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게 배출되지 못하고 있고, 모두 우리 한국은 불교라는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들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 ▶ 질문자: 질문하십니까?
- ▶ 사회자: 예, 몇 분 있습니다.
- ▶ 스님: 네, 질문하세요.
- ▶ 질문자(남): 스님의 회향하는 법과 하심하는 법을 크게 말씀하시든 알아듣지 못하는 문외한임을

의 의식과 천차만별의 생각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제각기 일어나는 거를 자기라고들 모두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나 먼 미래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들이 생겨난 것인데, 그 업식들이 해코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라든 거죠. 잘 생각이 나오는 것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통이 하나를 가지고 우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지

것도 이 한생각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한생각을 잘 하면 구렁이에서 나올 수도 있는가 하면 한생각을 잘못하면 구렁이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누가 다스리고 나갑니까! 자기 주인공 선정입니다. 그 선정은 영원한 자기의 선정이며 불기동입니다. 그 불기동,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레에 모두 실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기 콩깍이 자기 콩씨를 믿어야 합니다. 그 콩이 과거 일로 돌아가서 뿌리에 달린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씨이 있는 데에 붙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도 콩씨입니다. 콩씨가 그 뿌리로 화(化)했으니까 맙니다. 그러니까 화한 콩씨와 화하지 않은 콩씨와 둘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子)와 부(父)가 들어 아니게끔 통하면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자와 부가 하나로 왜가지고 부가 돼서 부처가 되고, 또 무슨 일할 게 있어서 생각을 했다 하면 부가 자로 하나가 돼서 법신(法身)이 되고, 또 움직여지고 모두 이렇게 간다, 움직여질 게 있다 행동할 게 있다 이렇다면 법신이 그 자인 육신과 하나가 돼가지고 화신(化身)이 된다. 화신이 된다는 건 화한다 이거죠. 화해서 또 남을 위한다 할 때는 응신(應身)이 됩니다. 이렇게 잘나잘나 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그렇게 묘법인데 우리가 그걸 알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 권리를 찾지 않고 그냥 터럭터럭 거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죽는다면, 또 그 자리에서 나와서 종자는 종자로 또 나와서 그 종자로 또 살 겁니다. 깨씨가 팔씨 될 리 없고 팔씨가 깨씨 될 리 없고, 씨 종자대로 이 세상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공부란 씨 종자가 따로 없이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즉, 불씨가 된다 이겁니다. 불종자가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제?

▶ 질문자(남): 믿음의 변함없는 힘을 키워가겠습니다.

▶ 질문자(여): 이렇게 스님을 대하고 보니 참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미련한 중생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자에게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장남이 이 절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서른셋입니다.

▶ 스님: 서른셋이요?

▶ 질문자(여): 네, 장남이요. 그런데 여전히 저리 혼사일에 마음을 열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님을 찾아뵈려 왔습니다.

▶ 스님: 아, 그것은 본인이 맞는 사람이 없기에 마



그림 · 최주현

통감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의 법을 받들어 처음에는 뭔가 확 트이는 것 같고 뭔가 넓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점차 가다보면 그것이 그것인 것 같고 저것이 저것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오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등글 속을 헤매고 있는데 스님께서 등글 하나 밝혀주셨는데, 그 빛만 볼 줄 알았지 그 밖에 광대한 법이 있는 것을 모르는 저희들의 마음을 통감하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스님: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들은 세계를 보란 맙니다. 그것만 보면 전 대천세계가 보일 테니까 맙니다. 자기 몸속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천차만별

구에 붙어서 다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라고요. 그럴 때 그것이 모두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면서 같이 터 붙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이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혼자 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든 잘못했든 거기다 다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 자신 혼자 그냥 이 결테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결테기 속에서 한 거니까 결테기 속에서 다 맡겨 놓으라는 거죠. 결테기 속에서 맡겨 놓으면 거기서 벌써 대뇌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四丈)로 또 통신이 되죠. 그럼으로써 이거는 내가 살 길이 터지는 겁니다. 또 살 길이 막히는

22면으로 계속

건봉사 템플스테이 및 수련회 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처아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금강산 건봉사는 아미타 염불 만일 기도도량이자 임란당시 사명대사가 승군을 일으킨 호국도량입니다.

이 유서깊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건봉사에서 바쁜 생활에 지친 분들의 삶의 재충전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시

- ▶ 1차 : 2007년 7월 27일 ~ 29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 ▶ 2차 : 2007년 8월 10일 ~ 12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 ▶ 참가비 : 70,000원
- ▶ 준비물 : 필기구, 운동화, 세면도구, 우산
- ▶ 입금계좌 : 농협 247-01-251767
- ▶ 예금주 : 건봉사 (입금 후 전화연락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봉사 주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우)219-900 강원 고성군 거진읍 병천리 36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합장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한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단란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금 · 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카드로 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